| 현불 논단 |

문화의 다섯가지 속성



주석 스님
문화예술법인
쿠무다 이사장

인간 영역 모든 것 포함된 문화
시대성에 따른 부정·긍정 담겨
국가별 · 지역별 특성도 분명해

문화가 지닌 속성 알아본다면
의미와 가치 폭넓게 이해가능

공유성·학습성이 기본적 특징
축적돼 다양하게 형성되기도
정체되지 않고 변모해야 공존

문화(文化)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서 요약해보면 대체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한 사회의 개인 또는 인간 집단이 자연에 대응해온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이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문화라고 지칭하는 것에는 사실 인간의 영역에서 다뤄지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라고 지칭되는 것들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시대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로 인해 문화는 그 시대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과 긍정을 모두 담고 있다.

문화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많은 변화와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 각국의 문화는 변천되고 또한 다채로운 모습으로 지역별로 그 자리를 잡게 되었다. 사실 우리가 은연중에 대화를 나누면서도 문화라는 말은 공공연하게 사용하게 되고 그 공공연한 문화의 단어 속에는 문화가 다르다는 표현도 수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문화란 무엇인가. 또는 문화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되면 이에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문화란 무엇이며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평소 우리가 쉽게 접하고 흔하게 사용하는 문화라는 말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좀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에서의 수업과정을 통해 배운 바와 같이 문화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가 '문화의 공유성'이다. 공유성을 보여주는 쉬운 예를 들자면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각 사찰에서는 등을 만들고 오색찬란한 등불을 켜는 것을 들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런 풍경을 보면서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알게 된다.

또 거리 곳곳에 크리스마스트리가 보이게 되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종교와 무관하게 거의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공통적으로 인지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연등=부처님 오신날', '트리 장식=크리스마스'라는 문화적 특성을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두 번째는 '문화의 학습성'이다. 학습성이란 누구든지 태생적이거나 기본적으로 알게 되고 향유하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후천적 학습을 통해 인지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그 학습성의 사례를 사찰의 예절문화로 들 수 있는데 출가 수행자든 일반 재가자든 처음부터 사찰예절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사찰예절이란 출가 수행자의 경우는 처음 출가해서 행자생활과 수행생활을 오랫동안 지나오면서, 또 재가자의 경우는 기초 교리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의 신행을 거치면서 인위적으로 익히고 훈습되는 것으로 반드시 학습이라는 과정을 겪어야만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세 번째는 '문화의 축적성'이다. 축적성이란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세대와 세대간 전달을 통해 장기에 걸쳐 일정한 형태와 지식이 쌓이면서 하나의 문화로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는 '문화의 변동성'이다. 어떤 문화라도 영구불변한 문화는 없으며 시대와 환경, 이를 향유하는 집단 구성원의 변동은 물론 새로운 지식과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에 변화를 거듭한다.

다섯 번째는 '문화의 전체성'이다. 전체성이란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거대한 종합적 형태로 형성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로 인해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문화의 다섯 가지 속성을 짚어 보면서 글을 쓰다 보니 문화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고민하게 된다. 문화란 변동하지 않고 정체돼 있다면 과거의 문화도 현재의 문화도 미래의 문화도 공존할 수 없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지금이 나를 바꿀 기회다

〈몰입의 즐거움〉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생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굳이 덕을 추구하고, 진화의 길을 추구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행동은 오래도록 울려 퍼지면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식이 죽고 난 뒤에도 어딘가에 씨줄과 날줄의 일부분으로써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하고 싶은 말은 '윤회하면서 우리는 진화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생에서 나의 생각과 행위는 다음 생의 나를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업의 과보로 태어나 업력의 굴레 속에서 살아갑니다. 업력(業力)이란 '마치 자기력(磁氣力)과 같아서 자기의 의지대로 되지 않고 자기가 지은 업을 따라 끌려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 먼 과거로부터 현재에 지은 선업과 악업에 따라 행복과 불행, 기쁨과 고난의 삶을 전개시키는 것이 업력입니다.



그림 · 최주현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거둬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원인을 만들지 않았다면 결과는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그러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 과보가 온 것이므로 받아야 할 것은 기꺼이 받아 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인과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인연의 법칙 속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모든 업의 인(因)이 내게서 온 것임을 알고 마음을 풀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얽힐 때 전체가 얽히고 내 마음이 풀릴 때 전체가 풀어집니다.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원리는 현재의 업연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단 받아들여야 얽힌 매듭이 풀리고 운명을 바꿀 새로운 인(因)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인(因)을 심고 연(緣)을 맺고 업(業)을 짓고 과(果)를 받는 인연 업과의 관계에서 볼 때, 행복하거나 불행한 자리는 열매의 자리입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은 과보를 받음과 동시에 새로운 인을 심는 자리입니다. 과보를 받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씨앗을 새롭게 심느냐에 따라 미래에 거둘 결실이 달라집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밀한 인연법에 대해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연법은 우리를 협박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인연의 원리를 알면 삶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인연법을 제대로 알면 최악의 상태에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어려움도 많지만 그만큼 인생은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 생에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승려대회, 종교감수성 제고 계기로

전국 5000여 스님들이 한국불교총본산 조계사에 결집해 종교편향 · 불교왜곡 저지와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외친다고 한다. 1월 21일 열리는 전국승려대회는 불교계의 대대적인 결집만으로도, 상당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승려대회의 취지는 명확하다. 우리사회에 더 이상 종교로 인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계는 이미 70년이 훌쩍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직간접적인 종교편향과 차별, 불교왜곡 및 비하에 상처받아 왔다. 어찌보면 반세기 넘는 시기 누적된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염원이 승려대회로 모여들고 있는 셈이다. 다종교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종교 갈등은 사회화합과 국민통합을 해치는 잠재적인 불안요소인 만큼,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안타까운 부분은 이번 승려대회가 단순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교 폄훼 발언을 규탄하거나 정치적인 행보로 인식되는 분위기라는 점이다. 물론 불교계 여론이 결집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캠페인, 도넘은 가톨릭 성지화 등이 함께 불을 지폈다. 그러나 승려대회는 단일사안에 대한 규탄을 넘어 근본적인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사회 속 암암리에 내재된 차별을 드러내, 국민들의 종교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승려대회의 근본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고 우리사회 인식 변화를 이끄는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전국승려대회에 담긴 메시지가 정청래 의원 논란에 묻혀 정치행보로 치부되고 불교계 이익을 위한 결집으로 비춰져선 안된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왕조실록, 진정한 환지본처를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 의궤의 환지본처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 의궤가 다시 본자리인 오대산 월정사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66명의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오대산 사고본 환지본처에 관한 결의안'이 큰 역할을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비공개회의를 열고 해당 결의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 회의때 이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유문화재의 관리 총괄 권한은 원칙적으로 문화재청장에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유 동산문화재를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사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문화재청도 '일부 수용' 형태는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회의에서 문화재청이 "원본 대여를 통해 당해 문화재를 현지를 공개하는 방안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결의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 의궤는 월정사를 중심으로 한 환수운동 끝에 반환받았고, 본래 자리인 오대산에도 이를 관리할 역량과 준비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는 월정사를 포함한 불교계가 그동안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 의궤의 환지본처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근거이기도 하다.

환지본처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일견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문화재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기 위한 과정이 너무나 지난한 까닭이다.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 의궤가 대여전시 수준을 넘어 진정한 의미에서 환지본처될 날이 오길 발원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증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완벽시설, 가격 198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방문시 8천만원 하는 마이크 있음을 스마트폰 확인해 드림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89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8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8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